

# 이재명, 당권행보 시동...광주 찾아 지지기반 다지기

### 시민 소통 '위로 걸음' 행사

### 'SNS 정치' 보폭도 넓혀가

### 출마 결심만 남았다 관측

### 다른 당권 주자들도 속속 광주행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10일 국회 입성 후 첫 지방 일정으로 아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찾았다.

최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발걸음(지지층 확대 독려)'에 나선 이 고문이 호남 방문을 통해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당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저 투표율을 보였던 만큼 광주 민심을 달래고, 지지층 확대를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이 고문은 이날 오후 5시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을 방문해 '이재명과 위로 걸음'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시민들과 30분간 대화를 나누고 공원을 함께 걸으면서 민심을 경청했다. '위로 걸음' 행사는 이 의원이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위해 기획한 행사로, 지난달 18일 지역구인 인천 계양산 둘레길에서 진행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이 고문은 행사에 앞서서는 광주가톨릭대학교를 찾아 윤공희 대주교와 한반도 평화 등을 주제로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윤영덕·이형석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동석했다. 전당대회에서 이 고문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출마가 거론되는 인천 출신 재선 박찬대의 원도 동행했다.

이날 일정은 6·1 지방선거 이후 이 고문의 첫 지방 방문이라는 점에서 당내 이목이 집중됐다.

이 고문의 이번 광주 방문은 당의 핵심 지역이

자,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호남 민심을 먼저 끌어안고, 다른 당권 주자들에 비해 높은 지지도를 안정적으로 굳힐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광주에서 지지 기반을 다지는 행사를 통해 사실상 전당대회 준비의 신호탄을 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마침 당 지도부의 전당대회 돌 정비 작업도 이 고문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마무리되면서, 당 내에서는 이 고문의 출마 결심만 남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고문 측 관계자는 "이 고문이 평소 광주를 '사회적 어머니'라고 표현할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있다"며 "전당대회와 무관하게 민심을 경청하는 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문은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지자들과 온라인 소통도 강화하는 등 'SNS 정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 고문은 이날 행사 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만찬을 하며 지역 현안 등을 논의했다.

경쟁 주자들도 속속 광주를 방문하며 당권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주자인 강병원의 의원도 이날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강기정 광주시장 및 광주 시의원·구청장들과 간담회를 했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방선거 당시 광주의 투표율 37.7%는 단순한 경고고 아니라 '통렬히 반성해서 혁신하고 통합하라'는 절실한 명령이자 회초리"라며 "호남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당을 바꾸는 일을 광주와 호남의 이름으로 제가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주자인 김민석 의원은 지난 5일 당 대표 출마선언 후 첫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실책이 확인된 관성적인 대안부재론을 극복해야 한다"고 이 고문을 직격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10일 오후 광주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5·18 기념공원 원형광장에서 광주지역 지지자들에게 인사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민주, 광주 서구를 위원장 경선 한다...응모 4명 '당심 잡기' 경쟁

### 1~2명 컷오프...27일까지 선출

양향자(무소속)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를 지역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후보들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경선 방식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이면서 각 후보들은 '당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은 지난달 22~24일 서구를 지역위원회 공모를 받고 선출 절차에 들어갔다. 공모 결과 선정배 전 법무부장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김경만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이남재 전 광주시 정무수석 등 4명이 응모했다. 민주당은 심사 혹은 경선 선출을 검토한 끝에,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면접 등을 통해 1~2명은 컷오프(경선 배제)해 경선에서 배제한 뒤 권리당원을 상대로 한 자동응답전화(ARS) 투표를 통해 27일까지 선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각 후보들은 지역 당원들을 만나며 바닥 표심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찌감치 광주 서구에 사무실을 개소한 김경만 의원도 이날 출마의 변을 통해 "서구(을) 당원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위원회를 통해 민주당의 무너진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고 학생시절을 보낸 광주는 내 고향이며, 광주의 젊은 인재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고향 광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뒤늦게 정치에 뛰어든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은 이날 자신의 출사표를 지역 당원들에게 보내면서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돌입했다. 양 전 고검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중앙선대위 국민 검증법률지원단장 역할에 혼신의 힘을 다해 선거를 치렀다"면서 "대선 이후 윤석열 정권의 전횡과 폭주를 목도하면서 정치의 길을 걷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정치 입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선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양향자 의원에겐 고배를 마셨던 이남재 전 수석도 당시 조직력을 최대한 가동해 당심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서구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선정배 전 장관도 당시 인연을 맺은 지방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혀가며 경선 준비에 나서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누가 되나

### 이번 주 인선 작업 시작

### 이르면 오늘 추천위 구성 발표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곧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 뒤 코로나19에 확진돼 이달 13일까지 자가격리를 하지만, 자택에서 정상 업무를 보고 있어 추천위 발표에 지장은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추천위는 당원직 위원 5명과 비당원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비당원직 4명 중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맡는 것이 전례다. 김형욱 전 법무부 장관이나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가 구성되면 일주일간 국민 천거 방식으로 후보군 추천을 받는다. 천거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은 그들 가운데 일부를 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장관이 직접 후보자를 제시할 수도 있다. 추천위는 심사대상자 중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총장 후보군으로는 검찰 내에선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검찰을 떠난 이들 중에는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배성범(23기)·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후보군이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지지율 두 달만에 30%대 추락 꺾임 조사...보수 성향 지지자들 이탈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지난 5월 10일 취임 후 약 두 달 만에 40% 아래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7%로 지난 주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9%로, 전주에 비해 7%포인트 올랐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3%, '모름·응답거절'은

11%로 나타났다. 꺾임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직무 긍정률이 처음 40%를 밑돈 것은 취임 1년 10개월여만인 2014년 12월 셋째 주 조사였다.

당시는 이른바 '정윤희 문건'으로 불렸던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가 막바지였던 시점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2년 5개월여만인 2019년 10월 셋째 주에 40% 선이 붕괴됐다. 이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무렵이다.

연령대별로는 부정평가가 70대 이상, 60대, 30대 순으로 늘었고 긍정평가는 70대 이상, 60대, 18~29세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보수 성향이 강한 60~70대 이상과 2030 세대에서 이탈이 컸던 셈이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TS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 및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인프라 장비 활용

### 2022 친환경자동차·부품 시험·인증·평가 기업지원 사업 공고

광주지역 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친환경 자동차 기술역량 강화 및 산업 생태계 육성을 촉진하고자 "2022 친환경자동차·부품 시험·인증·평가 기업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장

**01 지원 개요**

- 대상 : 광주광역시내 자동차 관련 분사/공장/연구소가 있는 기업, '제작자등 등록증'의 주소가 광주인 기업 ※ 휴/폐업 및 부도업체 제외
- 지원범위 : 시험 비용의 최대 80% 이내 감면 (부가세 포함) ※ 업체별/시험별 지원금액 상이
- 지원기간 : 2022년 7월 ~ 12월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 지원장소 :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광주), 본원(화성), 특장차인증센터(김제)
- 지원시험 : 구동축전지(전기차/전기이륜차)안전성 평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시험·인증·평가 항목

**02 현장실명회 개최**

- 일시 : 2022년 7월 15일(금) 오후 2:00
- 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동 10로 22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지하 1층 회의실
- 행사내용 : 광주지역기업지원사업 브리핑 및 구동축전지 안전성평가 소개 등
- 참여방법 : 유선 신청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 대표번호 (062)970-3369

**03 신청 및 선정 안내**

- 신청기간 : 2022년 7월 18일(월) ~ 2022년 7월 23일(토)
- 신청서류 : 광주소재 증명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증명원, 제작자등 등록증 등) + [별첨 1]기업지원사업 신청서류 + 기타 필요 증명 서류 등
- 신청방법 : 신청서류 및 기타 제출서류 등 포함하여 광주지역 기업지원 사업 담당자 이메일 yeongji22@kotsa.or.kr 송부
- 선정방법 : 제출서류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시험 부서 확인을 거쳐 예산 한도 내 업체 선정 (선정 업체 개별 통보)
- \* 변경사항 발생시 자동차안전연구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www.katri.or.kr)

**04 문의처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문의 :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 대표번호 (062)970-3369
- 공고 및 서류 확인 : www.katri.or.kr

2022년 7월 6일

TS 자동차안전연구원

광주광역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